

2013학년도 1학기

## 교육 실습 소감문

소 속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학과 전공	교육학과 (정치외교학)
담당 과목	법과 정치
학 번	
이 름	
실습 기간	2013. 3. 25 ~ 4. 19 (총 4주)

## ‘교.육.실.습.’

먼 미래의 일일 것만 같았던 교육실습이 드디어 내게도 다가왔다. 교사의 꿈을 안고 입학한지도 어느덧 7년 만에 이제 나도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가르칠 수 있는, 학교현장의 교육을 몸소 경험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모교에 교육실습 허가를 받으러 가던 날, 정말이지 오랜만에 두근대던 가슴의 떨림을 기억한다. 죄송함 반 설렘 반, 스승의 날에도 좀처럼 찾아가지 않았던 학교를 졸업한지 수년 만에 찾아가는 느낌은 평소 잘 긴장을 안 하는 나조차도 나도 모르게 긴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상한 감정이었다. 교육실습을 신청하고 개강, 그리고 실습까지 4개월 동안 몇 번이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지만 실습준비를 다 마치고나서도 막상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 한다고 하니 다시 흥분되기 시작하는 마음은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웠다. 다른 곳도 아니고 내 모교 아닌가.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웃고 울고, 우리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나의 마지막 10대 시절을 보냈던 그곳에 내가 다시 돌아가는 그 느낌이란, 아마 교육실습이 아니면 다시 느낄 수 없을 일종의 기대감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지나간 4주 동안의 교육실습,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들 중 하나는 아이들과 첫 만남을 하던 날이다. 수많은 기대를 안고 들어선 교실에는 나와 10년 차이가 나는 30명의 후배들이 앉아 있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아이들도 교생이 온다고 많이 기대하던 눈치였다. 호기심 가득 어린 눈으로 날 바라보던 아이들의 눈동자 하나하나가 다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선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첫 종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꽤 오랜 시간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앞으로 이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들이 내 머릿속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걱정들은 단지 내 기우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그런 내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잘 대해 주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적극적인 아이들도 많았다. 나중에 내가 자기의 모교 선배인 사실을 안 아이들은 더 친근하게 내게 다가왔고 나도 그들에게 선배이자 교생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터놓고 나눌 수 있었다. 1학년 수업이 없어서 비록 내가 수업시간에 직접 우리 반 아이들을 가르칠 순 없었지만 담당 선생님의 양해를 구해 매일 조례 종례를 진행하고 우리 반의 시간표에 맞춰 끊임없이 수업 참관도 가고 체육시간에도 함께 뛰놀다 보니 처음엔 조금 어색해 하던 친구들도 나중에 다 하나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1, 2주차는 반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정과 동시에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3주차 수업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3주차부터는 2학년의 법과 정치 수업을 맡아 진행했다. 다행히 교생들 중 사회과가 나포함 3명이라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수업준비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잊지 못할 첫 수업.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다. 물론, 처음엔 밤새 고민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연습한대로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다보니 이제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

보면서 아이들의 질문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을 나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도 나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각 반의 마지막 수업에 들어갔을 때,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쳐 주었다. 몇몇은 아쉬워하며 앞으로 내가 좀 더 수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교육실습을 하면서 가장 큰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던 것 같다. 아이들의 별거 아닌 칭찬과 격려에, 아쉽다는 그 말 한 마디에 그동안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눈 녹듯 녹아 없어지는 신기한 기분을 경험했다. 그때서야 난 왜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맨날 힘들고 지친다고 하시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아이들을 만나러 가시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교생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부치는 것은 많이 없었으나 다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행정적 업무 처리가 아니었나 싶다. 학교 다닐 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참 편할 거란 생각을 했었다. 얼마나 편한 직업인가! 하루에 수업 3~4번만 하고 또 일 년에 방학이 두 번이나 있고.. 하지만 이제 내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 달 동안 느낀 선생님의 업무량은 정말 저걸 다 어떻게 소화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다. 국공립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교의 경비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서울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특성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선생을 총원하기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국공립처럼 각 부서마다 행정선생님을 둘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어떤 선생님들은 주요과목의 경우 일주일에 많게는 24시간을 들어가는 분도 계셨다. 방과 후에 진행하는 보충수업까지 하게 되면 일주일에 거의 서른 시간 가까이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밀려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자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과거보다야 행정업무가 많이 간소화 되었다고는 하나 집중이수제 등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 계신 주요 과목 담당 선생님들은 정말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셨다. 교사로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만 교사가 아니라 교무실 내에서 주어지는 수업 외 업무능력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교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작게는 가정통신문과 시험지 분배와 준비에서부터 답안지 봉투 만들기 등 나아가서는 진로 체험 활동 참가 장소 물색, 수학여행 선호 장소 조사, 학교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문회 주소록 작성까지 4주 동안 전문적인 부분까진 아니지만 나름 많은 행정업무를 소화했다. 작년에 비해 교생이 적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행정업무를 하면서 참 선생님들이 수업 뿐 만 아니라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 구나하는 생각에 그동안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편하게 생각했던 나 자신의 생각을 다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수업과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다가온 교육실습의 마지막 4주차. 시간이 무상하게 참 빠르게도 흘러가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

러간 적은 좀처럼 없었던 것 같았다.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이들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서로에 대한 어색함을 깨고 매 순간 다가오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여러 생각과 감정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이제야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정해진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마지막 4주차는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 그래서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우리 반 아이들과 담임선생님과 나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도 찍고 개인별로도 많은 사진을 찍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에도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던 나였기에,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진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라는 걸 잘 알기에, 나중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4주차 내내 아이들과 사진을 참 많이 찍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종례 때 벚꽃 나무 아래서 찍은 우리 반 단체 사진을 액자에 넣어 아이들에게 편지와 함께 나눠주었다. 사진 뒤에는 지금 이 순간의 추억을 잊지 말라는 글귀도 적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장기를 살려 아이들이 불러준 스승의 은혜에 대한 답례로 기타연주와 작은 노래도 선물해 주었다.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몇몇 아이들이 훌쩍거리서 나도 감정이 폭발쳐 오르기도 했지만 아쉬움은 없었기에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아이들과 웃는 얼굴로 헤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생이 다 끝나고 그동안 동고동락 했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동료 교생들과 뒤풀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나는 한참동안이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왠지,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다시 출근을 해야 할 것 같고, 조례를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아이들에게 또 잔소리를 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잡다한 상념들이 머릿속에 오고 갔다. 휴대폰에는 아이들의 감사와 사랑이 담긴 메시지들이 와 있었다. 모두 다 소중한 기억들, 그리고 사람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선생님들과 한 달을 함께 고생한 동료교생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마웠다. 그리고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면서 갑자기 나는 다시 나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떠올렸다.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하고.. 나 역시 그랬다. ‘10년 뒤에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 그때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오늘, 나는 그때의 나와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만났다. 만감이 교차했다. 그때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나는 내가 그렇게 원하던 모습의 어른이 되어 있는지.. 10년 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샌가 나는 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멋진 어른이 되어 있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되어 있자고..

한 달 동안의 짧은 교육 실습이었지만 이번 교육실습은 나에게 교사로서의 소질과 적성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는 고마운 경험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한 달 간 교육실습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힘들 때마다 곁에서 격려해 주신 선생님들, 또 못난 대표교생을 만나 고생한 동료교생들이자 훌륭한 모교 후배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평생 잊을 수 없을 29명의 첫 제자들을 만났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 다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때, 당분간은 적응을 해야겠지만 한동안은 많이 생각날 것 같다. 내 잊지 못할, 지난 한달 간의 소중한 추억들과 사람들, 그리고 내 제자들이. 그만큼 이번 한 달의 교육실습은 내게 꿈과 같은 시간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